

1958년 부일영화상 제정과 폐지 원인에 대한 고찰

문 관 규*

| 목 차 |

- I. 서론
- II. 본론
 - 1.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과 부일영화상의 출범 의의
 - 2. 부일영화상과 부산영화의 선도성
 - 3. 제1회 부일영화상의 운영과 부일영화상의 특징
 - 4. 부일영화상의 성과
 - 5. 1973년 부일영화상의 폐지 원인
- III. 결론

| 국문초록 |

1958년 3월 27일 부산에서 개최된 부일영화상은 1973년 중단되었다. 부일영화상의 제정은 부산영화촬영소의 개소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발족으로 영화가 문화의 중심으로 편입되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부일영화상은 배우 입장과 개회사 그리고 시상식과 상영회를 구비한 작은 영화제였으며 영화도시 부산의 정체성 구축과 부산 관객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부산영화사에서 1996년 부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 cinemhs@hanmail.net

산국제영화제의 뿌리는 부일영화상으로 볼 수 있다.

부일영화상의 성과는 1960년대를 이끌었던 유현목, 신상옥, 김기영으로 이어지는 거장의 발견과 윤정희, 문희, 김진규라는 스타의 발굴로 집약된다. 부일영화상은 1970년대 텔레비전의 보급과 영화제작 편수의 감소 그리고 국가기관의 통제로 인한 한국영화의 침체로 중단의 위기에 봉착했다. 부일영화상 중단은 산업적 요인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부산일보사 대표의 경영철학도 영향을 주었다. 낙하산 인사로 부임한 대표이사는 부일영화상을 이끌었던 허창도를 권고 사직시키고 부산일보 경영난 타개를 위한 사업의 구조조정 명분으로 수익과 무관한 사업을 폐지하였다. 1974년 부일영화상의 중단은 산업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합작품이었다.

부산 영화 산업의 위축은 부산영화계가 극복해야할 시대적 책무였다. 부일영화상은 부산영화평론가들의 위상 회복과 영화 부산의 명성을 이어가려는 무의식적 산물로 여겨진다. 부일영화상은 부산영화의 선도성을 통해 실시한 축제가 서울로 전파된 문화확산의 사례이다. 부일영화상은 영화상이라는 대중문화의 축제를 부산에서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부일영화상에서 발원한 영화축제는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와 이후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전국 단위 국제영화제의 개최를 촉발하였다. 이는 부산에서 발원한 문화확산의 전형적 사례이다.

주제어 : 부일영화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문화확산, 부산일보, 부산영화사.

I. 서론

부산은 초창기 한국영화사에서 경성(서울)과 비견된다. 영화가 도래한 초창기 서울과 부산은 극장 설립 과정과 영화 제작 활동에서 유사한 행보를 엿보인다. 부산은 1903년 일본인 거주 지역에 설립된 행좌와 승정좌에서 각종 공연을 상연했다. 이에 비해 서울은 남촌의 일본인 거주지에서 각종 연예공연과 활동사진 상영이 이루어졌다. 흥영철에 의하면

부산은 1914년 옥관(旭館)의 활동사진 상설관 개축으로 활동사진 상설관 시대가 열렸다. 1914년 행관의 개관과 1916년 상생관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사진 상영 기반 시설을 갖추었다. 서울은 1903년 한성전기회사 기계장에서 활동사진이 상영된 다음 1906년 동대문활동사진소에서 영화 흥행장을 열었으며 1907년 단성사가 개관하였으며 1910년 활동사진 전용관인 경성고등연예관이 개관하여 영화(활동사진)가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진입해간다.

부산에서 활동사진의 상영은 옥관, 보래관, 초량좌, 행관, 상생관 국제관, 유락관, 태평관의 개관으로 본격화되어 1929년 발성영화 극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이 시기에 보래관, 행관, 상생관의 일본인 극장주들은 ‘부산키네마협회’를 결성하여 활동사진 독과점을 시도하였다.¹⁾

부산은 1930년대에 극장가가 형성되고 영화상영관 시대를 개막한다. 1930년에 소화관(동아극장), 1934년에 부산극장의 개관으로 남포동 극장가가 형성되어 영화 상영의 설비를 구축하였다.²⁾ 1930년대 후반에 현재의 남포동 극장가가 형성되었으며 본격적인 영화상영관 시대를 열었다. 1940년대는 1948년 부산일보의 뉴스영화 촬영반이 활동하였으며 광복동에 예술영화사가 설립되어 이규환의 <해연>(1948)을 제작하였다. <해연>은 2014년 9월 일본 고베영화자료관에서 발굴되어 2015년 7월 7일에 공개하였으며 필름이 현존한다. 예술영화사는 제작사의 위용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장 김낙제, 전무 강영구, 상무 이청기, 제작부장 이철혁, 문예부장 이운룡, 연기부장 박학, 음악부장 정종길, 총무부장 허병오로 조직되었으며 전속 배우로 연극인 출신 김동규, 박

1) 홍영철, 『부산극장사』, 부산포, 2014, 93~97쪽.

2) 홍영철, 『조선키네마(주)에서 부산국제영화제까지. 부산의 근현대 영화산업과 영화관』, 『해항도시 부산의 재발견』(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엮음), 선인, 2014. 125~128쪽.

학, 이재현, 최근, 유경애, 남미림, 조미령이 소속³⁾되어있었다. 예술영화사는 『예술영화』와 『해연』이라는 비정기 간행물을 발행할 만큼 영화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예술영화사의 지향점은 영화의 예술성 회복과 건강한 도덕적 계몽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제작부장 김철혁은 “극장은 모두 외화에 농단당하고 그 위에 영화모리배가 발호하는 욕된 오늘에 있어서 돈과 권력에의 아부를 물리치고 진정한 예술에 사는 영화인들이 와신상담하여 피와 땀으로 짜인 것이 이 『해연』(영화잡지-인용자 주)⁴⁾임을 선언하여 영화 예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민아에 의하면 『해연』은 부산에 위치한 예술영화사 1호 작품으로 이철혁 기획, 이규환 연출, 이운룡 각본으로 김동규, 박학, 남미림, 조미령이 출연하였다. 감독은 김영화가 내정되었으나 그가 공보처 공보국 영화과장으로 임명되어 이규환 감독이 대신 연출하였다. 1947년 촬영을 시작하여 제작 기간은 1년이었으며 특별 유료 시사회는 1948년 11월 10일 중앙극장에서 열렸으며 12월 부산의 부민관 상영 도중에 정부당국에 압수되었다. 상영금지 원인은 출연 배우인 박학과 유경애의 월북으로 추정된다⁵⁾. 부산영화사에서 1940년대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가 제작되었으며 영화잡지의 발간으로 영화활동을 지속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서울 영화인들이 대거 부산에 유입되었다. 국방부 촬영대와 공보처 산하 대한영화사가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영화 제작이 활성화되었다. 아울러 미공보원은 진해에서 뉴스영화를 제작하였다. 이곳에서 제작된 작품은 <전진대한보>이며 이는 1953년 <리버티 뉴스>로 개칭되었으며 피난지 극장에서 상영하였다. 다른 제작팀은 한

3) 정중화, 『한국영화계의 ‘예술영화’ 지향』, 『해방과 전쟁 사이의 한국영화』, 박이정, 2017, 308쪽.

4) 정중화, 위의 책, 304쪽.

5) 정민아, 『<해연>과 멜로드라마의 정치성』, 『해방과 전쟁 사이의 한국영화』, 박이정, 2017, 129~130쪽.

형모 감독이 참여한 국방부 촬영대이다. 이 팀은 ‘1951년 1.4 후퇴로 보수동에 자리를 잡고 목욕탕 건물에서 평양촬영소의 노획품으로 현상 시설을 만들고 기록 영화 <국방 뉴스>를 1952년 6월 27일 제 1호를 시작으로 총 49편’⁶⁾을 제작한다. 참여 영화인은 김학성, 홍일명, 이성춘, 변인집 등이다. 공보처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특별전선 뉴스>와 <대한 뉴스>를 제작했다. 공보처 영화작업은 “경남 도청 지하실에 현상소를 만들고 아이모 카메라 2대와 인화기 1대로 뉴스제작 활동”⁷⁾을 하였다. 부산에서 영화제작은 경남도청 지하실에서 작업한 공보처와 보수동에서 작업한 국방부 촬영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작품은 다큐멘터리였다.

한편 부산으로 내려온 영화 평론가들은 부산에서 한국영화평론가협회를 결성하였다. 정용탁에 의하면 “6.25 동란 중 영화평론의 활성화를 위한 최초의 의지적 모임이 부산에서 있었다. 1950년 오종식(회장), 오영진, 유두연, 전창근, 최백산, 이청기, 김소동, 이철혁, 이봉래, 이정선, 박이환, 황영빈, 이진섭 등이 <한국영화평론가협회> 결성”⁸⁾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부산의 일간지에 영화평을 게재하면서 활동하였으며 1953년 휴전으로 인해 대부분 서울로 환도한다. 환도한 영화평론가협회의 공백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으로 채워진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일간지 문화 담당 기자와 평론가들은 1958년 부산영화평론가협회를 결성한다. 1958년은 “부산 전포동에 최초의 영화촬영소가 건립되어 부산에서 영화 제작의 가속도”⁹⁾가 붙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1958년 부산에서 박두석을 간사로 3월 20일에 결성된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6) 한국영상자료원 지음, 『한국영화의 풍경 1945~1959』, 문학사상사, 2003, 135~136쪽.

7) 한국영상자료원, 위의 책, 137쪽.

8) 정용탁, 『비평부재시대의 자성론』, 『1926~1990 한국영화의 이해』, 예니, 2001, 191쪽.

9) 홍영철, 『조선키네마(주)에서 부산국제영화제까지 부산의 근현대 영화산업과 영화관』, 『해항도시 부산의 재발견』, 선인, 2014, 132쪽.

부산일보에서 제정한 부일영화상의 운영과 심사에 적극 관여했다. 1958년의 부산은 부산영화촬영소 개소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발족 그리고 영화동호회의 결성으로 영화계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영화는 부산문화의 중심부로 나아가고 있었다. 부산문화계에서 영화의 위상 변화는 부일영화상 출범을 촉발하는 문화적 요인이었다. 본고는 부산영화사에서 부일영화상의 제정 배경과 운영 그리고 부일영화상의 폐지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본론은 부일영화상의 제정과 연동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과 부일영화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서지적 검토 그리고 부일영화상의 폐지 원인을 정치적 격변기에 처해진 부산일보의 구조조정과 관련성으로 규명할 것이다.

II. 본론

1.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과 부일영화상의 출범 의의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수도 부산에서 느슨하게 결성되었다가 1960년 서울에서 재결성되었다. 이에 비해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1958년 3월에 부산에서 부산일보 기자와 교수 그리고 문학인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은 부일영화상의 제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부산일보의 논설위원인 박두석을 중심으로 “1958년 3월 20일에 박두석, 허창, 장갑상, 황용주, 이주홍, 여수중, 김일구 등 7명의 평론가들이 모여 출범”¹⁰⁾하였다. 회원 구성원 중에서 여수중을 제외한 여섯 분은 모두 부일영화상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부일영화상의 심사

10)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20년- 영화의 바다 속으로』, 본북스, 2015. 34쪽.

위원들은 부산영화평론가협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들은 부일영화상의 본심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창립과 부일영화상 본심 심사위원 구성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 부일영화상 1차 투표의 마감일이 2월 15일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2월 23일 개최 예정이었다. 부일영화상의 심사는 2월에 진행되었으며 다음 달인 3월 20일에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창립되었다. 부일영화상 심사위원회 개최 이후에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창립된 사실은 부일영화상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인과성이 입증된다. 또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전체 회원 7명 중에서 6명이 부일영화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실은 부일영화상의 제정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창립의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해준다. 결론적으로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부일영화상의 심사위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부일영화상의 제정 동기는 일차적으로 부산일보사의 영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다. 부산일보사의 영화에 대한 관심은 영화부가 독립된 부서로 활동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김여진 기자에 의하면 ‘1940년대 말에 ‘영화부’가 부산일보 편집국내 독립 부서로 존재하였으며 편집국 문화부장 허창도의 영화평이 1958년 10월부터 1969년 7월까지 연재’¹¹⁾되었으며 부산일보의 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부일영화상 제정을 견인하였다. 정봉석에 의하면 부일영화상은 “부산일보가 박두석의 강력한 건의를 수용하여 1958년 2월 부일영화상 제도”¹²⁾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부일영화상의 산과역은 논설위원 박두석과 문화부장 허창이었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대표인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두석의 건의와 문화부장 허창은 영화상 제정의 문화적 분위기를 주도한 인물이다. 박두석은

11) 김여진, 『부일영화상 어제 그리고 오늘』, 『부산영화사』, 부산대출판문화원, 2021, 226쪽.

12) 정봉석, 『부산영화사』, 『항도부산』 14, 1997, 366쪽.

당시 부산일보 논설위원이었으며 문화부장인 영화평론가 허창은 영화평으로 부산일보의 지가를 올리고 있었다. 박두석은 부산일보 논설위원이자 부산일보 주필까지 역임한 바 있으며, 부산일보사에서 영향력있는 인물이었다. 박두석의 위상은 논설위원과 주필의 역임으로 확인되며 “1957년 10월 이후 박두석 홍선일이 차례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논설위원 발령을 받았으며 박두석은 곧 두 번째 주필”¹³⁾로 활동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허창의 본명은 허창도이며 영화평론가 창(彰)으로 문명을 날렸다. 허창도의 활동은 “1950년대 후반 영화의 전성기에는 <영화평>란에 대한 독자들의 인기가 폭발해 본사는 아예 허창도를 기획조사부 차장으로 발탁, 58년 10월 27일부터 그의 영화평을 게재했다. <창>이라는 필명으로 집필한 이 영화평은 애독자가 많아 69년 7월까지 10여 년간 지속됐다”¹⁴⁾는 사실을 통해 그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허창은 부산일보에 영화평을 연재하면서 수많은 독자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저명한 영화평론가 겸 기자였다. 허창과 박두석은 부산일보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에 소속되었으며 두 인물은 부일영화상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매개이자 산과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부산의 영화에 대한 열기와 두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여 부산영화평론가협회와 부일영화상은 심사와 운영에서 자연스럽게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일보는 편집국의 영화부를 편성하여 문화의 중심에 영화를 배치하였다. 문화부장 허창의 영화평은 구독자와 영화애호가들을 영화 문화의 향유자로 계몽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영화애독자의 증가와 문화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영화의 위상 변화는 부산일보사가 부일영화상의 제정을 결단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3) 부산일보, 『부산일보 70년사』, 부산일보사, 2016, 86쪽.

14) 부산일보, 『부산일보 50년사』, 부산일보사, 1996, 202쪽.

2. 부일영화상과 부산영화의 선도성

부산영화평론가 협회의 결성은 1960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결성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와 서울과 지역의 양립구도를 형성하였다. 현재도 서울의 한국영화평론가협회와 부산의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부산영화사에서 부산과 서울이 영화사 초창기에 양립구도를 정립한 이후 양립 구도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부산은 부산영화평론가 협회의 결성으로 서울과 양립구도를 구축하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상인 부일영화상의 제정과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 그리고 부산영상위원회 출범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화상과 영화제 그리고 영상위원회의 출범은 전국에서 부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부문이며 이는 부산정신인 도전자 정신과 부합한 행보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역사 문화적 자원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지역 이미지 또는 지역 고유의 특성”¹⁵⁾이다. 부산의 정체성은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방성, 개방성, 민중성, 선구자 정신’을 주목한다. 선구자 정신은 “항상 최전선 혹은 최선두에 위치하여 외래문물을 유입하거나, 외부의 적과 싸우거나, 혹은 외지 혹은 새로운 세계(물리적 공간 및 사이버 공간, 가치, 이념, 제도, 행위 등)를 개척해나가는 정신”¹⁶⁾으로 규정한다. 선구자 정신은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선구자 정신의 개척정신은 문화적인 맥락에서 선도적으로 문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개척해가는 선도성으로 명명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래 문화에 대한 개방과

15)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부산학』, 누리, 2016. 94쪽.

16)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위의 책, 103쪽.

포용은 개방성과 혼종성의 정신으로 포괄되고 새로운 문화를 건인하고 이끌어가는 전위의 자리는 선도성으로 귀결된다. 영화적인 측면에서 부산의 선도성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발족을 건인하였으며 1958년 부일영화상 제정과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 과정은 차이가 있다. 서울과 별도로 조직된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1958년 부일영화상을 계기로 부산에서 조직되었다. 서울에서 영화평론가협회가 창립된 것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족을 기반으로 하였다. 영화평론가 김종원에 의하면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발족된 것은 1950년 9월 10일 임시수도 부산이었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 구성원은 박인 환, 이진섭, 이봉래 등 문인들과 전창근, 오영진, 김소동 등 영화인들을 비롯한 허백년, 이청기, 유두연, 이철혁, 황영빈, 이정선, 최백산이 참여하였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언론인과 문인 학자 중심이었다면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문인과 영화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환도 이후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서울에서 1960년 이영일이 중심이 되어 이영일, 김정옥, 노만, 황운현, 김종원이 참여하여 재발족되었다. 하지만 “5.16으로 자진 해산하고 재결성된 것은 1965년 11월 10일이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올바른 비평정신의 확립과 친목을 목적으로 출범했다”¹⁷⁾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1950년 피난 수도에서 느슨하게 결성되었다가 영화인들의 환도로 인해 1960년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1960년대 정부의 강압으로 해산되었다가 1965년 재결성하여 오늘까지 활동하고 있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각각 활동을 근거지를 서울과 부산에 두었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서울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하여 선도적인 면모를 보

17) 김종원, 『한국영화비평사 시론』, 『영화평론』 제 1호, 1989, 27쪽.

여주었다.

부산의 정체성인 해양성, 개방성, 민중성, 혼종성, 선도성은 부산영화사 발전과 일정한 길항관계를 보여준다. 부산의 정체성은 주변성과 지역성이 부각되어 타자의 응시 대상에서 중심으로 편입되려는 욕망과 세계의 중심으로 재조정하려는 중심지향적 태도로 집약된다. 구모룡은 ‘사람과 상품이 들고 나면서 문화가 전파되거나 수용되는 이산과 혼종의 문화’¹⁸⁾를 토대로 하는 이산과 혼종을 부산의 정체성으로 주목한다. 박훈하의 ‘국지적 정체성의 강화는 표준화된 세계 시장 속으로의 공간의 재조정 작업’¹⁹⁾이라는 비판적 논의는 세계성과 지역성에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주변성과 개방성은 중심과 세계에 대한 응시의 시선이 강조되며 주변에 종속될 때는 타자의 시선에 지배되지만 독자적인 자율성이 강조될 때 선도성이라는 진취적인 태도로 발전한다. 응시의 시선과 주변성은 선도성과 더불어 영화의 영역에서 성찰적 시선을 요구한다. 부산영화사의 시각에서 부산의 정체성은 주변성과 지역성보다 주체적 자율성이 부각된 개방성과 선도성이 부각된다. 한국영화의 초창기에 서울과 부산은 영화산업의 평행적 구도를 보여주었다. 초창기 부산영화는 제작과 배급 그리고 영화 담론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양립구도를 구축하였으며 1950년대까지 대체로 수평적 발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극장가 형성과 제작의 환경은 부산과 서울이 대등하며 평행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중심은 선도적으로 설립된 부산의 조선키네마주식회사와 부일영화상이 자리했다. 부산의 영화는 현재에도 부산독립영화협회의 활동과 부산 영화라는 이름 짓기를 통해 서울과 독립된 거리두기의 제작과 담론의 행보를 지속한다. 이와 같은 독립적이

18) 구모룡, 『부산을 이해하는 방법 - 부산학』, 『부산의 역사와 인물』,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278쪽.

19) 박훈하, 『지금, 로컬리티의 미학』, 신생, 2015, 47쪽.

고 평행적 행보의 역사적 뿌리는 조선키네마주식회사와 1910년대 극장가의 형성 그리고 부일영화상 제정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범과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부산영화사의 행보는 타자의 시선에 인정받으려는 욕망보다는 스스로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방성과 앞에서 견인해가는 선도성의 두 바퀴를 중심으로 나아갔다. 선도성은 타자의 시선과 산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무관심으로 집약된다. 타자의 시선과 산업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무관심성이 매개가 된 선도성이 부산의 영화를 이끌어간다. 무관심성은 칸트의 무관심성과 산업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라는 두 가지 함의된 의미이다. 칸트의 무관심성은 ‘미적 판정을 내릴 때 주관은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벗어나 ‘비당파적 태도’를 갖고 대상의 표상에 집중’²⁰⁾하는 것이다. 무관심성은 유용성과 거리를 두는 미적가치판단이다. 부산영화사는 중앙으로부터 인정이라는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태도와 산업적 유용성과 문화적 권력의 영향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선도성의 행보를 이끌어왔으며 이는 부산의 정체성인 선구자 정신과도 의미적으로 부합된다. 중앙으로 편입의지를 제어하고 산업적 이해관계를 삭제하고 문화적 권력 지형으로부터 주체적 자기 정립은 부산영화의 선도성을 견인하는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선도성은 부일영화상의 제정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범이라는 전위적 문화 활동의 동력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부산의 영화계는 제작과 배급 그리고 상영이라는 자율적 산업적 시스템과 부산 영화 담론 생성과 영화 축제의 생성 그리고 부산독립영화제작이라는 측면에서 선도성을 통해 자율성의 공간을 선취했다. 선도성과 자율성은 중심과 주변, 세계와 아시아 변방이라는 이분법을 지우고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보폭을 확장한다. 부산의 개방성과 선도성은 영화

20) 하선규, 『무관심성』,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출판부, 2007, 52쪽.

적 측면에서 부일영화상을 견인하였다.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개최한 1958년 부일영화상은 서울의 영화상을 촉발하는 촉매역할을 하였으며 부산지역에서는 문화의 중심에 영화를 정립하였다. 또한 1990년대의 부산독립영화의 제작을 견인하였으며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를 촉발했다. 아울러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으로 영화도시 부산을 위한 산업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촬영 지원을 위한 부산영상위원회의 출범으로 확장된다. 부일영화상은 영화제의 속성인 쇼케이스와 시상식을 갖춘 불완전한 영화제였다. 부산영화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부일영화상에서 시작된 영화제는 1976년 부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아시아영화제를 거쳐서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로 확산되었다. 부일영화상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흐름은 부산 영화를 중심으로 편입하려는 종속적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다는 선도성과 자율성의 발현과 내밀하게 연계된다. 부산의 영화행사의 시발점이자 중앙과 주변의 수평적 영화 행보의 출발점은 1958년 부산일보사에서 제정한 부일영화상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의 양립 구도는 부산영화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의 영화제작과 배급사 사쿠라바 상회의 활동에 닿는다.

부산은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에서 독립된 행보를 보여주었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부산영화사의 맥락에서 볼 때 부산국제영화제의 뿌리는 부일영화상으로 거슬러갈 수 있다. 부일영화상의 운영은 소규모 영화제의 행사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영화제는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세 가지 요건은 “첫 번째가 문자 그대로 ‘영화제’ 필름 페스티벌(film festival)이며 두 번째는 영화상과 시상식(award ceremony)이며 세 번째는 영화 소개와 상영위주로 이루어진 쇼케이스(showcase)”²¹⁾

21) 김홍준, 「바람직한 영화제의 운영 방향과 그 문제점」, 『한국영화문화』, 월인, 2005,

이다. 부일영화상은 영화상과 시상식 그리고 일부 작품의 쇼케이스로 진행되어 불완전한 영화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즉 부일영화상은 부일 영화제로 명명해도 무리가 없는 행사였다. 부일영화상은 불완전한 영화제의 형식을 지녔지만 1958년에서 1973년까지 시행하면서 영화도시 부산의 정체성 구축과 부산영화 관객의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부일영화상은 영화상과 시상식 그리고 영화 소개와 상영을 하는 쇼케이스와 축제인 페스티벌 형식을 갖춘 1996년 출범한 완전한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국제영화제라는 이름과 형식으로 역사적으로 재소환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영화 축제의 시각에서 살펴볼 때 ‘부산영화사에서 부일영화상은 부산영화제의 뿌리이다’는 명제가 가능하다.

한국의 영화상 역사에서 부일영화상의 위상은 확고하다. 한국영화사에서 최초의 영화상은 금용상으로 알려졌다. 금용상은 배우 이금용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영일은 “이금용은 나운규의 <사랑을 찾아서>에서부터 중후한 연기력과 인품을 평가 받아왔고 30년에 걸친 연기자 생활에서 그 공헌이 컸다. 그의 재능은 금용상이라는 영화 시상 제도를 마련 할 만큼 크게 아까웠을 것”²²⁾으로 회고하였다. 금용상은 해방 후 영화인 모임에서 제정되어 한 번 수상 후 폐지되었다. 안중화에 의하면 1955년 명동의 동회루 2층에서 회합하여 심사위원장은 오영진, 간사는 전택이를 선정하여 <열애>를 찍은 후 세상을 떠난 배우를 기념 하자는 취지로 상을 제정했다고 한다. 참석자는 유두연, 이봉래, 허백년, 김소동, 윤봉춘, 복혜숙 등이었다. 상의 제목은 이금용의 이름을 따서 ‘골드 드래곤’(금용)으로 하자는 전택이의 주장에 따라 결정되었다.²³⁾

123쪽.

22)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2, 247쪽.

23) 안중화, 『영화동네 사람들』, 일선출판사, 1969, 180쪽.

금용상은 배우 이금용의 추모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부여한 영화상이며 영화인들이 모여서 제정하고 한번 시상식을 개최한 다음 그 이후 자취를 감춘 상이다. 서울에서 시행된 금용상에 이어서 부산에서 부산일보의 후원으로 본격적인 영화상의 면모를 갖추어 출범한 영화상이 바로 부일영화상(釜日映畫賞)이다. 이로 인해 부일영화상은 한국영화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인 ‘금용상’ 다음으로 ‘부일영화상’을 제정하여 3월 27일에 수상식을 거행하여 한국영화의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²⁴⁾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영화사에서 부일영화상은 본격적인 영화상의 출발점에 놓여있다. 부산일보의 사정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영화상은 1996년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영화제와 쇼케이스와 시상식이라는 형식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며 이는 부산영화제의 맹아로 볼 여지를 남겨준다.

3. 제1회 부일영화상의 운영과 부일영화상의 특징

부일영화상의 운영주체는 부산일보이며, 운영 방식은 시상식과 영화상영회로 편성되었다. 작품 선정 방식은 1차는 시민 관객 참여로 진행하였으며 2차는 전문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선정 방식이었다. 제 1회 부일영화상의 진행과정은 2월 15일 1786명의 관객이 참여하는 관객 투표로 진행하였다. 1차 투표 결과는 감독상에 유현목, 스티븐슨, 윌리엄 와일러가 후보로 추천되었다. 관객들이 추천한 배우는 최무룡, 조미령, 잉그리드 버그만, 오드리 햅번, 제인스 딘 등 이었다. 작품 선정 방식은 관객 참여와 의견의 수렴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형식은 현재 국제영화제의 시민관객상과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인기투표처럼 관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유도하는 민주적 방식이었다. 본심 심사위원은 이주홍

24) 홍영철, 앞의 글, 132쪽.

(李周洪), 황용주(黃龍珠), 장갑상(張甲相), 허창(許彰), 김일구(金日球), 곽열(郭烈), 정무호(鄭無號), 구중회(具中會), 박두석(朴斗錫)이다. 이주홍, 황용주, 박두석, 장갑상과 허창, 김일구는 모두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창립 회원들이며 그 외에 학자와 언론인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으로 충무로 현장 영화인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현재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대상 작품은 1957년 1년 동안 상영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이며 이 중에서 한국영화 5편과 외국영화 10편을 대상으로 열 한 개 부문의 수상작을 결정하였다. 심사 항목과 취지는 1958년 2월 10일자 기사에 자세하게 기술되어있다.

57年度 國產外國 映畫11個部門

◇趣旨

民族文化의 發展에 至大한 影響을 가지는 映畫文化의 正當하고 急速한 發展을 꾀하고 觀衆의 鑑賞眼을 돋우기 爲함

◇受賞對象

前年一月一日부터 十二月末日까지에 釜山市內封切館에서 開封된 作品中에서 受賞作品과 受賞者를 選定한다

◇選定規定

- ① 各首相項目에 對하여 映畫愛好者의 一般投票를 實施한다(投票는 二月十二,三日의 本紙上의 指定用紙 使用)
- ② 一般投票結果를 本社에서 委囑한 審査委員會서 決定한다
- ③ 受賞項目=가, 國產映畫=最優秀作品·監督·男女俳優演技·上映劇場賞·나, 外國映畫=最優秀作品·監督·男女俳優演技·輸入·上映劇場賞
- ④ 國產映畫는 「베스트 파이브」를 外國映畫는 「베스트 텐」을 順位대로 選定하고 第一位作品을 最優秀作品으로하며 上映劇場賞과 輸入賞은 이것을 基準으로한다²⁵⁾

부일영화상의 제정 취지는 ‘민족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는 영화문화의 정당하고 급속한 발전을 꾀하고 관객의 감식안을 돋우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영화의 발전과 관객의 감식안을 높여주고 능동적 참여의 장을 마련해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부일영화상은 심사위원으로 영화평론가가 참여하여 감식안을 돋우고 영화에 대한 가치발견과 문화로서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선정 대상은 전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설정하였다. 선정 방식은 이미 언급한 바대로 영화애호가의 참여를 통한 1차 투표를 대상으로 부산일보사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현재 예심과 본심에 영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방식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영화 관객들이 한국영화 베스트 5와 외국영화 베스트 10을 선정한 다음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열한 개 부문 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관객들은 수상작 선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상 부문은 한국영화는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녀배우 연기상, 상영 극장상, 외국영화는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녀 배우연기상, 수입상, 상영 극장상으로 열한 개 부문이다.

1회 부일영화상 심사 결과는 유현목의 <잃어버린 청춘>과 펠리니의 <길>이 우수 작품상에 선정되었으며 유현목 감독과 펠리니는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선정된 우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는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화명 다음의 괄호 안은 상영극장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영화 우수 작품은 ①잃어버린 青春(第一劇場), ②시집가는 날(東亞劇場), ③失樂園의 별(前篇)(釜山劇場), ④誤解마세요(國際劇場), ⑤黃昏列車(釜山劇場)이다. 외국영화 우수 작품은 ①길, ②금지된 장난, ③고엽(枯葉), ④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⑤에텐의 동쪽, ⑥ 공포(恐怖)

25) 부산일보, 1958년 2월 10일(<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580210000065> 검색일 :2021.10.10)

의 보수(報酬), ⑦지상에서 영원으로, ⑧애정(哀情)의 쌀, ⑨자이안트, ⑩욕망(慾望)이라는 이름의 전차(戰車)이다. 최우수 남우주연상은 <시집가는 날>의 김승호이며 차점으로는 최무룡(崔戊龍), 최삼(崔三), 노능걸(盧能杰), 전택이(田澤二)이며 여우 주연상은 <실락원의 별>에서 열연한 주증녀(失曾女)가 수상하였으며 차점자는 <시집가는 날>의 조미령(趙美鈴) 그리고 문정숙(文貞淑), 나애심(羅愛心) 이었다.

우수 외국영화 수입사는 세 편을 수입한 공생사(共生社)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외국영화 상영극장(秀外國映畫上映劇場)상은 베스트 10 중에서 4 편을 상영한 국제극장이, 한국영화상영 극장상은 베스트 5 편 중에서 두 편을 상영한 부산극장이 선정되었다. 시상식 진행은 레드 카펫을 연상하는 입장 행사와 군악대 연주 그리고 개회사와 경과 보고 그리고 축사로 구성되었다. 이는 현재의 국제영화제 폐막식과 개막식 그리고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부일영화상 시상식은 1958년 3월 27일 국제호텔에서 거행되었다. 당시 기사를 통해 부일영화상 시상식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 시상식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국제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육군 군악대 취주악으로 막이 열렸으며 검은 한복을 입은 배우 주증녀가 시상식장에 입장하였다. 부산 일보의 이수우 부사장의 개회사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 간사이며 영화상 심사위원장인 박두석의 심사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축사는 경남도지사 대리와 문충 대표 그리고 경남 극장협회 대리가 참석하였으며 수상자 대표로 배우 주증녀의 답사가 이어졌다. 배우 김승호는 홍콩 로케이션 촬영 일정으로 인해 부인인 이해경 여사가 대리 수상하였다. 외국 배우의 상패는 영화 수입 회사를 통해 대신 전달되었다. 부일영화상 시상식은 경남도지사 대리를 비롯한 기관장과 극장협회 그리고 문인들의 축사와 배우의 답사로 이루어졌으며 축제보다는 문화 행사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4. 부일영화상의 성과

부일영화상은 1958년에서 1973년까지 16회를 시행하면서 한국의 배우와 감독의 발견에 기여하였으며 우수 작품도 발굴하였다. 부일영화상은 2008년 부활되어 2020년 제 29회를 맞이했다. 1960년대 거장의 시대에 유현목, 김기영, 김수용 이만희가 활동하여 한국영화의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이 시기에 부일영화상은 유현목과 김기영, 신상옥을 발견하여 거장의 검증장으로 그 위상을 공고하게 다졌다. 제 1회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한 유현목은 <오발탄>(1961)으로 연출의 정점에 도달하였지만 그의 작가로서 부상은 부일영화상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련성을 지닌다. 유현목 감독은 1958년 제 1회에 <잃어버린 청춘>(1958)으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였으며, 1959년 제 2회에 <인생차압>(1959), 1963년 제 6회의 <아낌없이 주련다>(1963), 1965년 제 8회의 <잉여인간>(1965), 1969년 제 12회의 <카인의 후예>(1969), 1972년 제 15회의 <분례기>(1972)로 최우수 작품상을 여섯 차례 수상하였다. 1958년에서 1973년까지 열여섯 차례 실시된 부일영화상에서 여섯 번의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여 최다 최우수 작품상 수상 작가였다. 유현목은 감독상을 다섯 차례 수상하면서 부일영화상에서 동시대 한국작가로 승인받으면서 1960년대 한국영화를 이끄는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1960년대는 유현목의 전성기였으며 이 시기에 부일영화상과 대중상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지지와 검증으로 한국영화사에서 대표적 감독으로 우뚝 서게 하였다. 김기영 감독은 제 3회 <십대의 반항>(1960)으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 1964년 <고려상>(1964)으로 다시 감독상과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여 동시대 주목할 만한 감독으로 부상하였다. 김수용 감독은 김기영과 비견될 만한 수상 실적을 남겼다. 김수용은 1966년 제 9회 부일영화상에서 <갯마을>(1966)

을 통해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 이후 <산불>(1966)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듭 수상하였다. 이만희 감독도 1967년 <만추>(1966)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작가의 자리를 다졌다. 이외에도 신상옥, 정진우, 정소영 등도 부일영화상을 통해 자신의 작가적 입지를 다졌다. 1960년대 거장의 시대를 이끌었던 유현목, 김수용, 김기영, 이만희, 신상옥은 부일영화상 수상으로 작가의 검증을 받았으며 대중상과 청룡영화상에서도 그들의 위상을 확인했다.

부일영화상이 발견한 배우는 1960년대의 김승호, 김진규, 신성일, 신영균이며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영화사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배우였다. 여성 배우는 김지미, 문희, 최은희, 문정숙, 주증녀, 이민자, 윤정희 등이 부일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1960년대 국민배우 김진규는 <잉여인간>(1965),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2)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옥화>(1959),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2)의 최은희와 <안개>(1968), <석화춘>(1973)의 윤정희도 부일영화상을 통해 스타의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부일영화상은 영화에 대한 가치 평가와 동시대 한국영화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1960년대 거장의 발견과 스타덤의 형성에 일조하였다. 1970년대는 텔레비전의 보급과 영화제작 편 수의 감소 그리고 국가기관의 통제로 인한 창작 의지 위축으로 한국영화는 침체의 터널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일보사의 내부 사정이 공모하여 부일영화상의 중단이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부산영화사 측면에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와 부일영화상의 존재는 서울 중심의 영화 구도에서 부산 영화의 독립적 존재감을 유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선키네마 주식회사 해산은 부산에서 서울로 영화인 이동을 촉발하였다. 부산의 영화제작과 산업적 위축은 부산영화계가 극

복해야 할 시대적 책무였다. 부일영화상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과 활동은 부산영화 위상 회복과 서울과 양립구도로 한국영화계를 건인하는 부산영화계의 무의식적 산물로 여겨진다. 1924년 조선 키네마주식회사의 설립과 와해로 인한 영화제작의 위축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서울 영화인의 유입과 국방부 정훈국을 위시한 영화제작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1953년 충무로로 환도하면서 다시 산업적 퇴보를 거듭했다. 1954년 국산영화 장려책으로 국산영화 입장세 면세 조치 단행과 1955년 이규환의 <춘향전> 흥행 성공으로 시작된 한국영화의 성장은 부산영화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1958년 부일영화상의 제정으로 가시화되었다. 부일영화상은 초창기 부산영화의 흐름을 재소환하였다. 1958년에서 1973년까지 운영된 부일영화상은 영화제작의 위축이라는 산업적 침체를 극복할 대안으로 영화 감상과 불완전한 영화계를 통해 영화문화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었다. 이와 같은 부산영화계의 활동은 1970년대 소형영화동호회의 활동과 1980년대 부산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영화운동으로 역사의 흐름을 이어갔다. 그리고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으로 결실을 맺었다. 부일영화상은 부산영화사에서 영화축제의 출발이며 영화 인력의 환도와 제작 환경의 악화라는 공백을 축제의 이름으로 채운 것이다. 또한 부일영화상의 의의는 부산영화 제작의 위축을 대체하여 1950년대 후반 적막한 부산영화를 이어가는 영화사적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5. 1973년 부일영화상의 폐지 원인

1958년 제정된 부일영화상은 1970년대에 폐지되었다. 부일영화상의 폐지 원인은 대체적으로 1970년대 한국영화 산업의 침체에서 찾았다. 한국영화사의 측면에서 1970년대 영화계의 침체는 대체로 합의된

부분이다. 한국영화사가 아닌 격동의 현대사를 언론 일선에서 맞서온 부산일보 역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정치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부일영화상의 폐지 원인은 다각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남겨져있다.

부일영화상의 폐지의 주된 요인은 자타가 공인한 1970년대의 한국영화 침체라는 제작 환경이다. 1970년대 한국영화의 침체는 극장 수와 관객 수의 감소라는 산업적 지표에 여실하게 드러난다. 영화사에서 한국영화 침체의 요인은 “TV 보급과 국민들의 오락 성향 형태의 다양화, 영화의 질적 하락”²⁶⁾을 들며 질적 저하의 원인은 ‘시나리오와 필름 검열이라는 이중의 검열과 정부의 국책영화 장려와 개입’이라는 정치적 요인으로 적시한다. 2017년 부산일보의 사설도 1973년 부일영화상 중단 원인이 산업적 요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론한다. 부산일보 사설에서 “부일영화상은 1958년 국내 최초의 영화상으로 출발했지만, 텔레비전 등 전파 매체의 등장으로 1973년 제16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2008년 35년 만에 부활”²⁷⁾했다고 기술한다. 부일영화상의 중단은 전파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영화의 침체를 사유로 적시한다. 전파 매체의 등장과 한국영화의 정책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화 산업의 위축은 관객의 한국영화에 대한 외면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이는 곧바로 영화축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부일영화상 폐지의 또 다른 요인은 영화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부산영화평론가협회 활동의 침체와도 연관된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한국영화 산업과 연동되어 1970년대에 침체를 겪었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그 원인은 영화산업의 불황과 회원의 변

26) 손성우, 『도착적 근대, 물신으로서의 제22회 아시아영화제』, 『아시아영화연구』 10-1, 2017, 148쪽.

27) 『부산일보』 2017. 10. 12., ‘부활 10년 부일영화상 ‘별들의 잔치’로 비상’.

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침체 상황은 “70년대의 영화계의 불황과 더불어 주요 회원들이 영화평론 일선을 떠남에 따라 침체기를 맞게 된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1970년대 김경동, 노응구, 한영수, 손해식, 김동규 등 학계와 방송계 인사들로 새로 탈바꿈하나 70년 이후 또 다시 활동이 중단’²⁸⁾되어 와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국영화평론계의 지형도에서 서울의 상황도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영일 선생이 이끄는 대표적인 영화잡지인 <영화예술>이 폐간되었고 영화평론가들의 활동도 현저히 위축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부산일보사의 내부적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부산일보의 경영난으로 인해 부일영화상의 주역인 영화평론가 허창의 권고사직이다. 부일영화상을 이끌어온 인물인 영화평론가 허창, 즉 부산일보 논설위원인 허창도의 권고사직은 부일영화상 폐지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된다. 부산을 대표하는 영화평론가 허창도는 창이라는 필명으로 부산일보에 영화평을 게재하여 폭넓은 독자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허창은 자신의 영화평과 부산일보 구독자의 지지를 동력으로 주필인 박두석과 함께 부일영화상 제정에 산과 역할을 한 주역이었다. 부산일보사에 의해 강행된 그의 권고사직은 부일영화상 중단과 인과성이 있을 것이다.

부산일보는 1962년 5월 25일 김지태 사장이 5.16재단에 넘겨주면서 실질적인 사주가 국가권력자로 전환되면서 여당지로 변질되어 독자층의 이탈로 인한 경영난에 직면하였다. 1970년대에 부산일보는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창생이 낙하산 인사로 사장에 부임하면서 여당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여당지로 전락과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신문사는 경영난에 봉착하여 타개책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부산일보의 경영 악화는 “71년에는 신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8%로 후퇴했고, 72년도에는 -

28) 정봉석, 앞의 글, 343쪽.

11%로 경영면에서는 곤두박질을 쳤다. 73년도에는 6% 성장, 74년은 12%로 겨우 회복세로 들어선 듯 했으나 75년을 다시 신장률 0.2%로 부진한 상태²⁹⁾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부산일보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의 대구 사범 동창인 왕학수가 9대 사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왕학수는 1917년 경북 상주 출생이며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그는 1961년 국가 재건최고회의 자문위원에 참여한 친박정희 인사이자 정권의 낙하산 인사였다. 왕학수 사장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사원 감원과 정년 하향 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1974년에 사규 중 사원정년제를 개정하여 1급 사원은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2.3.4급은 만 55세에서 50세로 대폭 낮추어 정년 하향조정을 통한 인원 감축을 유도하였다. 또한 1974년 3월 30일 19명의 사원을 권고 사직시켰다. 권고 사직의 명분은 경영난 극복과 불황 타개였다. 권고 사직된 19명의 사원 명단을 살펴보면 ‘총무국장 김기원, 공무국장 이용진, 논설위원 허창도, 판매부국장 문남호’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권고사직 사원 명단에 포함된 논설위원 허창도의 사직은 부일영화상 폐지의 개연성을 부여한다. 부일영화상을 제정하고 이끌었던 박두석과 허창의 투툽 체제에서 허창의 퇴진은 부일영화상의 한 축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두석은 75년 12월부터 5년 동안 논설주간으로 논설위원실을 지휘하였다. 부산일보사 사료에 의하면 박두석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까지 부산일보에서 중책을 수행하면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허창의 권고사직과 부산일보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사업의 구조조정은 부산일보의 경영 이익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 부일영화상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일영화상 폐지로 야기된 부산영화의 침체와 공백은 1976년 아시아

29)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96, 622쪽.

30) 부산일보사, 위의 책, 1996, 627~628쪽.

태평양영화제 개최로 잠시 회복한다. 1976년 부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제 22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는 “영화제를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과 근대성을 인정받고자하는 욕망”³¹⁾이 투영되었다면 부일영화상은 영화상을 통해 부산영화의 존재와 부산영화인의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다. 손성우는 아시아태평양영화제를 라캉의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평가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영화제는 ‘타자의 응시를 겨냥한 스펙터클로서 전근대성을 극복한 근대라는 물질적 환상’을 보여 주었다면 부일영화상은 ‘한국영화인의 주목을 지향한 스펙터클로서 지역성을 극복하여 영화 중심 부산이라는 부산시민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문화축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부일영화상의 영화사적 영향과 의의는 부산과 한국 영화 축제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부산영화사적 측면에서 부일영화상의 의의는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의 창립과 영화동호회의 활동,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결성과 함께 부산의 영화 역사를 이끄는 한 축을 담당했다. 1958년 부일영화상의 이름으로 개최된 영화축제는 1976년 아시아태평양영화제를 경유하여 1980년 부산단편영화제(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전신 영화제),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로 이어지는 영화축제의 발원지로 자리한다. 부산에서 개최된 부일영화상의 영향은 부산영화사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계에서 영화상과 영화제의 산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봉석은 부일영화상의 의의를 “부일영화상이 지방에서 제정된 최초의 것으로서 이후 “청룡상”, “한국예술상”, “대종상” 제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31) 손성우, 앞의 논문, 137쪽.

영화 발전³²⁾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이는 부일영화상이 영화제의 맹아이자 산파였음을 입증한다. 부일영화상이 부산영화사와 한국영화사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일영화상은 부산영화사의 흐름에서 관객의 열망을 결집하는 행사였다. 영화상은 제작이 위축된 1950년대 부산영화사의 흐름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에 개막되었을 때 ‘왜 부산에서 영화제가 개최되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산영화사 속에서 추적할 때 부일영화상의 존재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소환된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고 김지석 부집행위원장은 부산영화제에 대한 회고의 글에서 ‘부산영화제의 출범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부산고유의 영화문화와 부산 시민의 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영화인들의 폭넓은 지지³³⁾로 가능하였음을 역설하였다. 부일영화상이라는 시상식의 축제가 30년 후인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라는 페스티벌로 다시 귀환한 것이다. 부산영화사의 맥락에서 영화 페스티벌의 뿌리는 1958년 개최된 불완전한 영화제인 부일영화상인 셈이다.

한국영화사에서 부일영화상은 영화상이라는 축제를 도입하여 대중상과 청룡상을 촉발하는 매개가 되었다. 부일영화상은 영화상 시상과 축제의 형식과 독자 참여형 선정 방식과 심사위원제도의 채택은 서울에서 개최된 청룡상과 대중상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부산의 선도성이 견인한 축제가 서울로 전파된 문화확산의 사례로 주목된다. 문화 확산(cultural diffusion)은 “대중문화, 예술, 말, 학문과 같은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써, 동일한 가치나 양식을 공유하는 대중들이 확대되는 현상³⁴⁾이다. 부일영화상은 영화상이라는 대중문화의 축제를

32) 정봉석, 앞의 논문, 337쪽.

33) 김지석, 앞의 책, 34쪽.

34) 이충희 외, 『마그레브 지역 내 K-콘텐츠(드라마, 영화, K-Pop) 확산과 파급효과 현황 분석 -알제리와 모로코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39, 2020, 86쪽.

부산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부일영화상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지만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축제로 귀환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은 이후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전국 단위 영화제의 개막을 촉발하였다. 이는 부산에서 발원한 문화 확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문화 확산은 부일영화상 제정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으로 부산의 문화 확산 실천의 궤적을 보여준다. 부산의 중앙 종속으로부터 자유는 학술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영화제 영역은 이미 부일영화상 제정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 그리고 부산영상위원회의 창립으로 부산 중심의 문화 확산을 실천하였다.

부일영화상은 부산의 선구자 정신인 선도성의 산물이다. 자율적 선도성은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에서 자유로우며 중심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인정욕구에서도 벗어났다. 산업적, 문화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선도성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창립과 부일영화상의 제정이라는 축제의 동력이었다. 영화축제의 측면에서 부산은 문화 확산의 중심이었으며, 문화 확산의 궤도는 부일영화상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으로 확산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축제와 부산영상위원회의 영화제작지원은 전국에서 아시아로 확대되었다. 한국과 아시아로 확장된 문화 확산의 출발지점은 영화제의 측면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이며 영상위원회 측면에서는 부산영상위원회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뿌리가 1958년의 부일영화상으로 설정한다면 부산 문화 확산의 기점은 부일영화상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부일영화상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견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화축제와 영화지원 기관이 한국과 아시아로 확산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부일영화상은 부산의 지역성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건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은 서울 중심 지방 변방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이 공고화되었다. 지역의 행사는 서울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 욕구와 서울과 중심의 시선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서울과 중심이라는 상상 속의 대타자 시선에 종속되었다. 지역의 축제는 아시아태평양영화제처럼 타자의 응시를 염두에 둔 하나의 구경거리로서 제공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역의 행사는 하나의 물신으로 전락하고 타자의 응시를 염두에 둔 종속된 대상으로 위축된다. 하지만 부일영화상과 부산국제영화제는 중심과 중앙을 대체하는 물신으로서 행사가 아니라 스스로 중심이자 주체가 되는 주체성의 자리에 서 있다.

부일영화상은 문화로 소환되는 영화와 관객의 자발적인 열망 그리고 부산일보의 영화에 대한 호응이 결합하여 자생적으로 발생한 영화 축제이다. 이 축제의 의미는 중앙으로 편입의 의지나 서울과 국가라는 대타자의 응시를 지향하는 인정 욕구를 제거하고 부산에서 시작된 선도적 행사이다. 산업적 무관심성과 선도성은 축제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타산과 중심으로 편입되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 선도성과 주체성은 중앙과 서울이라는 이분법과 상상 속의 대타자의 시선을 무력화하며 페티시즘이 아닌 스스로 욕망의 주체가 되어 카니발의 충족감을 창출한다. 자생적 영화축제는 상상 속의 물신으로 페티시즘적 쾌락에 복무하는 낡은 방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부산문화의 주체성을 공고히 한다.

부일영화상의 의의는 1958년 부산에서 발원하여 1996년이라는 미래(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이라는 지역(영화상 제정)으로 확산된 문화 확산의 대표적 전범이며 부산 문화의 선도성의 성과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20년- 영화의 바다 속으로』, 본북스, 2015.
- 김수남 편저, 『한국영화문화』, 월인, 2005.
- 문관규 외, 『부산영화사』, 부산대출판문화원, 2021.
- 미학대계간행회, 『미학의 문제와 방법』 미학대계 제 2권, 서울대출판부, 2007
- 박훈하, 『지금, 로컬리티의 미학』, 신생, 2015.
- 부산일보사, 『부산일보 50년사』, 부산일보사, 1996
- 부산일보사, 『부산일보 70년사』, 부산일보사, 2016.
-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부산학』, 누리, 2016.
- 안중화, 『영화동네 사람들』, 일선출판사, 1969.
- 한국영상자료원 지음, 『한국영화의 풍경 1945~1959』, 문학사상사, 2003
- 이중거 외, 『1926~1990 한국영화의 이해』, 예니. 2001.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2.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엮음, 『해항도시 부산의 재발견』, 선인, 2014.
- 한상언 외, 『해방과 전쟁사이의 한국영화』, 박이정, 2017.
- 홍영철, 『부산극장사』, 부산포, 2014.

2. 논문

- 구모룡, 「부산을 이해하는 방법-부산학-」, 『부산의 역사와 인물』,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 김종원, 「한국영화비평사 시론」, 『영화평론』 1, 1989.
- 손성우, 「도착적 근대, 물신으로서의 제22회 아시아영화제」, 『아시아영화연구』 10-1, 2017.
- 이충희 외, 「마그레브 지역 내 K- 콘텐츠(드라마, 영화, K-Pop) 확산과 파급효과 현황 분석. 알제리와 모로코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39, 2020.
- 정봉석, 「부산영화사」, 『항도부산』 14, 1997.

3. 신문자료

『부산일보』 2017. 10. 12., ‘부활 10년 부일영화상 ‘별들의 잔치’로 비상’.

『부산일보』 1958. 2. 10.(<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580210000065> 검색일 2021.10.10.).

투고일 : 2021. 10. 18. 심사완료일 : 2021. 11. 22. 게재확정일 : 2021. 12. 07.

| Abstract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uil Film Awards 1958,
and the significance of film history

Mun, Gwan-Gyu

The Buil Film Awards(BFA) held in Busan on March 27, 1958 ceased in 1973. The establishment of BFA reflected the atmosphere of the times when films were incorporated as the center of culture with the opening of the Busan Film Studio and the inauguration of the Busan Film Critics Association. The process of BFA was a small film festival with actors' positions, opening remarks, awards ceremonies and screenings,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Busan as a film city and for the Busan audience. In the trend of Busan Film History, the roots of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996 can be seen as BFA.

The achievements of BFA contributed to the discovery of masters such as Yoo Hyun-mok, Shin Sang-ok, and Kim Ki-young, who led the 1960s, and the formation of stardom represented by Yoon Jeong-hee, Moon Hee, and Kim Jin-gyu. The Buil Film Awards was on the verge of cessation in the 1970s due to the downturn of Korean films, such as the spread of television and state control. In addition to industrial factors, it is due to the management philosophy within the Busan Ilbo. The Busan Ilbo representative dismissed Huh Chang-do, who led BFA, resignation and abolished the project as a cause of restructuring the project to overcome the Busan Ilbo's management difficulties. The cessation of BFA in 1973 wa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industrial and political factors.

BFA is regarded as the unconscious product of the restoration of the status of Busan film critics and continuing the reputation of 'Cinema, Busan'. BFA is noted as an example of cultural diffusion that a festival held with an indifferent identity spread to Seoul. BFA spread a popular cultural festival called Film Awards from Busan to Global world. This is the typical example of cultural diffusion that originated in Busan.

Key Words : The Buil Film Awards, Busan Film Critics Association, Busan Ilbo, Cultural diffusion, Busan Film History